

절망적 현실에 미래까지 불투명

이제는 한낱 향수로만 남아있는 활판인쇄의 현주소

활판인쇄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읍셋인쇄기가 수입된 20~30년전부터 일어난 일이지만 컴퓨터가 대중화된 근 3~4년간의 활판인쇄 퇴조현상은 가히 놀랄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계속돼 몇 안되는 활판인쇄소 중 3~4개의 사업체가 이미 전산사식으로 인쇄방식을 바꾸었을 정도다. 활판인쇄가 전산사식에 밀려나는 현상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 인쇄업계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아직까지 활판인쇄소를 경영하고 있는 인쇄업자들도 활판인쇄의 전망에 대해 '절망'이라는 단 한마디로 일축하고 말 정도로 그 앞날은 불투명하고 비관적이다.

현재 활판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업체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지금까지 활판을 고집하고 있는 인쇄소는 인쇄조합에 가입된 808개 인쇄업체 중에서 금영, 영신, 동서, 대신, 국일, 제일, 대경, 신성, 신도 등 9개업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에 인쇄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너개 업체를 합쳐도 단연 활판인쇄를 하는 인쇄업체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력소모 많아 경영 압박

신수동 현대아파트 뒤. 허름한 공장을 들어서기 전부터 철커덕철커덕하는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귀청을 먼저 때린다. 공장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네모 반듯한 활자들의 군상. 그 앞에서 문선공들은 섬세한 손놀림을 하며 활자를 뽑고 있었다. 자금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중소기업체들처럼 이 인쇄소 또한 사장실이 따로 없다. 사장님 책상이래야 사무실 맨 끝에 몇몇 책상과 같은 크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뿐 명패도 없다. 이곳이 바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활판인쇄소 중에서 가장 크다는 금영문화사다. 금영문화사의 허름한 외관은 곧 우리나라 활판인쇄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한다. 종업원수로 보자면야 금영문화사만큼 거대한 인쇄업체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35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가 금영문화사의 경영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용근 사장의 설명이다. 한사장은 전산사식과 활판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컴퓨터 한대 놓고 2~3명이 조용히 자판을 두드리는 전산사식에 비한다면 활판은 비능률적이지요.”

활판인쇄가 사라지고 있다.

전산사식방법이 도입되면서 급속도로

빨리진 이러한 현상은 이제

활판인쇄의 앞날을 '절망'으로

몰아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9개업체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몇년 후에는

활판인쇄기계가 박물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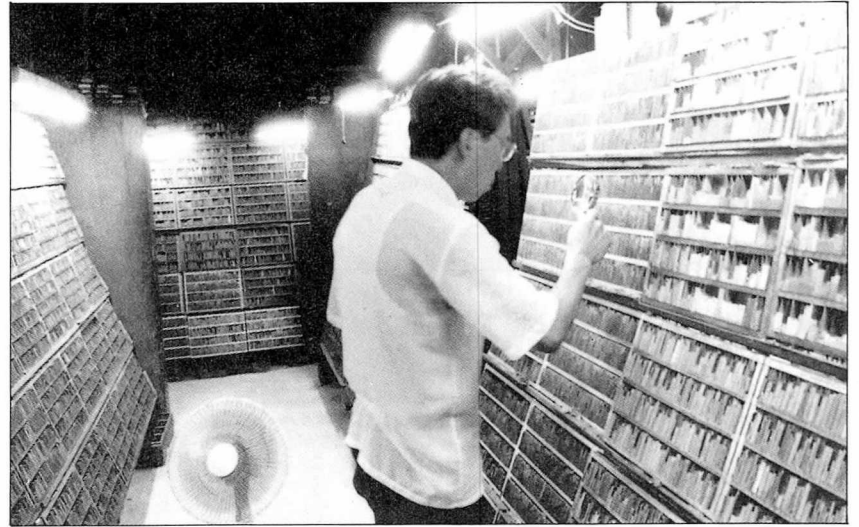
한켠을 차지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한사장의 말은 신성인쇄사대표 김중명(인쇄조합 이사장)씨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활판인쇄는 현재로서는 완전수공업형태의 인쇄방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조판, 문선, 케 등을 조판하기 위해서는 식자공 1명에 너댓명의 인원이 따라 붙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활판인쇄라는 것이 식자공 20명에 필요 인원은 1백여명이 넘을 정도로 손이 가는 일이지요.”

이러한 인력소모로 인해 인쇄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보통 전산사식으로 출판할 경우보다 1.5배에 달하는 활판인쇄의 가격은 자연히 출판사들로 하여금 전산사식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집 출판에 있어서 활판인쇄만을 고집하고 있던 세계사의 경우 세계사시인선의 20번째 시집 「살레시오네 집」(송재학)을 마지막으로 전산사식으로 인쇄방식을 바꾼다고 한다. 세계사에 근무중인 젊은 편집직원은 “시집의 경우 활판인쇄가 눈에 익었고, 지면에 활자가 푹푹 박혀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지만 편집과 교정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제작비도 비싼 편이다”고 말한다.

활판인쇄가 노동집약적인 일이라는 것 이외에도 활판인쇄를 사양사업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여러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읍셋이나 전산사식에 비해서 활판인쇄는 인쇄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다. 즉 활판인쇄가 활자를 만드는 주조 단계를 삭제하더라도 문선, 식자, 교정, 정판, 지형, 연판, 인쇄의 단계를 거쳐야만 할 뿐만 아니라 인쇄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 1시간에 2400통의 인쇄속도에 그치는 반면 읍셋의 경우는 1만5천여장을 인쇄하는 속도를 갖고



금영문화사의 한 문선공이 활자를 뽑고 있다.

있고 요즘처럼 칼라인쇄를 많이 할 경우는 경쟁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속도와 기술상의 차이는 대량생산과 신속성을 무시할 수 없는 현재의 출판문화에 있어서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쇄업자나 출판관계자들 모두의 지적이다.

활판인쇄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활판인쇄 기계들은 이제 고철값도 나오지 않는 폐품이 되고 있다. 금영문화사의 경우 창업초창기인 70년대 중반 25평 아파트를 구입할 정도의 돈을 치루고 구입한 활판인쇄기계가 이제는 돈을 더 없어줘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처분도 하지 못할 지경이며, 납활자와 이를 주조할 때 그들이 되는 자모나 신주는 구입하는 사업체가 없어지자 폐품 팔듯이 가마당 무게를 달아 파는 것이 현실이라 한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 명맥 간신히 유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판인쇄는 이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그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부분 출판계에서 잔뼈가 굵은 중년층 이상의 출판인이나 이 또래의 강단학자들로, 어떠한 지론이나 이론에 의해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책은 이래야 제격이야!”라는 다분히 향수적인 발상으로 활판인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활판인쇄가 필요한 인쇄물로는 한문이 많은 책, 고어가 많은 책, 보존성 있다고 여기는 책, 대학교재, 연구 논문집 그리고 고문서를 출판할 경우에 적합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정신문화연구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등에서는 아직도 활판인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전 고려대학교수인 김용옥씨는 자신의 저서 일체를 활판으로만 출판

하기를 고집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 일본에서 인쇄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영문화사의 경우 일본에서의 수주가 전체 일거리의 40~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장점 살려 문화적 보호 육성 필요

하루가 멀다않게 사라져가는 활판인쇄에 대해 업계종사자들은 “문화적 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정부가 여느 중소기업체처럼 활판인쇄소를 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문화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쓸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활자, 자모, 지형지를 버리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인쇄소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활판인쇄에 사활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금영의 한사장은 「서울인쇄소식」 45호에 활판인쇄 보존방안에 대해 “3천억원의 문화예술훈기금의 일부라도 넘보는 것이 엄청난 잘못일 지 모르지만 문화예술향을 아끼는 당국에서는 전통인쇄문화를 보존한다는 뜻에서 일정한 분야의 간행물 정도는 활판인쇄로 제작하여 후손들에게 남겨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튼 활판인쇄는 이제 새로운 인쇄기술에 의해 주역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활판인쇄기가 이 땅의 어느 박물관에 자리잡게 될지는 모르지만 옛날 고소설을 판본에 따라 나누듯이 언젠가는 활판본, 읍셋본, 전산사식본이라고 분류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 이성수 기자